

무주군, 지역경제 활성화 총력

무주사랑 상품권 발행·카드형 상품권 사용처 확대·착한임대운동 참여 유도 등 추진

무주군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대책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무주군청 산업경제과장을 총괄 반장으로 민생경제대책반(1개 반 5명)을 구성한 무주군은 현재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피해상황 등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으며, 관광객 수요 감소 및 일상적인 소비 위축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무주사랑 상품권 발행 규모도 당초 100억 원에서 120억 원으로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카드형 상품권 사용처 또한 '가맹점'으로 한정했던 것을 관내 모든 사업체(유통주점 및 관공서 등 일부 업종 제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방침을 변경했으며 소상공인(연매출 10억 원 이하 규모)들의 카드형 상품권 결제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정

예산을 확보해 수수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공공기관 및 사회단체, 일반 주민 등을 대상으로 관내 전통시장을 비롯한 상점가 이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식당 이용 활성화를 위해 군청 구 내식당도 1·3주차 목·금요일에는 운영을 하지 않는다.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한 중소기업육성기금 및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며 앞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무주군은 '착한임대운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으로 지역상가 임대인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상가 임대인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군 홈페이지와 SNS, 현수막, 읍·면 전광판, 이장회의 등 다양

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으며 군청 홈페이지에는 '착한임대운동' 미담사례 게시판을 운영해 사례를 공유하고 참여 상가를 홍보하는 등 참여를 활성화 시킨다는 계획이다.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 우려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마스크와 소독제 및 손 세정제 등의 관련 제품 매점 매석 행위, 가격 담합 등도 단속한다. 불공정거래행위 소비자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부당한 가격 인상이나 사재기 등을 집중 모니터링 할 방침이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힘든 시기지만 작은 노력들이 결국 모두를 일으키는 동력이 될 것"이라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노력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움직임들까지 모두 나비효과를 일으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아름다운 경선 통해 하나 된 진안 힘 보여주자"

전춘성 진안군수 예비후보



더불어민주당 전춘성 진안군수 예비후보는 지난 6일 경선을 하루 앞두고 "서로를 존중하는 아름다운 경선을 통해 하나 된 진안의 힘을 보여주자"고 호소했다.

전춘성 예비후보는 보도자료 통해 "진안군민은 하나의 가족이다"고 강조하면서 "경선을 앞두고 주민들을 이간질 시키면서 실체도 없는 권력을 나누는 식의 유언비어로 진안의 자존심

을 건드리는 네거티브를 즉각 중단하고 진안의 미래를 책임지는 아름다운 정책경선의 길로 돌아오라"고 강하게 주문했다.

또한 전춘성 예비후보는 "지방자치 민선 7기라는 긴 세월을 거치면서 과거의 군수들을 선택한 진안군민들의 고귀하고 성숙한 선거의식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전춘성 예비후보는 "정책을 통한 진안의 미래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경선의 길에 동참하고 모든 후보는 진안의 소중한 자산이라는 마음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승리와 진안발전에 함께 손을 잡고 나가자"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소식 통

장수군, 지속가능한 산림 경영 위해 임도사업 추진

장수군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과 관리를 위하여 20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해 임도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임도란 조림, 숲 가꾸기, 임산물 반출 등의 산림경영과 더불어 산불예방과 같은 산림재해 예방 및 복구와 같은 산림보호를 목적으로 개설하는 산림 내 도로이며 현재 장수군에서는 임도 53개 노선, 165km를 개설·관리 중이다.

올해 임도 신설 사업량은 산서면 오산리와 동화리를 잇는 간선임도 등 5km이다.

군은 해빙기를 맞아 임도 파손 및 사면붕괴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내 임도 53개 노선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구조개량 및 보수사업도 병행할 예정이다. 특히 시설임도에 안전임간판, 국가지점번호판 등을 순차적으로 설치하여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코로나19 거짓 뉴스 예방 최선

장수군, 관련 상황·예방법 등 공식 SNS에 게시해 주민 불안 해소

장수군이 코로나19로 인한 국민적 불안감이 고조된 가운데 가짜 뉴스 및 유언비어로 인한 주민 불안 해소를 위해 적극 나선다.

장수군은 지난 6일 코로나19 관련 유언비어 및 거짓 뉴스 예방을 위해 SNS와 홈페이지, 마을 방송을 통해 장수군 코로나19 의심·확진자 및 방역·대응 활동을 적극 홍보한다고 밝혔다.

현재 군은 매일 코로나19 관련 상황, 방역 미 소독 상황, 문화·체육·관광 시설 운영 상황, 코로나19 예방법 등을 장수군 공식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에 게시해 주민 불안 해소 및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또 코로나19 상황 종료까지 마을방송을 실시해 주민 불안을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장영수 군수는 "코로나19와 관련한 거짓 및 유언비어에 대해 대응해 군민들이 불안에 떨지 않도록 하겠다"며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청정장수를 지키기 위해 철저한 소독과 방역,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손 씻기와 4인 이상 모임 및 행사 활동을 자제하는 등 군민 스스로도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장수군은 현재 방역차량을 동원해 각 읍·면별 방역과 문화·체육·관광지 등 공공다중시설,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등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소독·방역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군, 농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선정

내사양·외사양마을·하노마을 등에 29억원 투입해 주민안정·주거환경개선 등 사업 추진

진안군은 지난 6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공모한 2020년 농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선정돼 29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기본적인 생활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사업비의 70%를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군은 오는 2022년까지 3년간 진안읍 내사양·외사양마을 14억원, 동향면 하노마을 15억원 등 29억원을 투입해 주민안정, 생활·위생, 주거환경개선,

주택정비, 소득창출, 휴먼케어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공모사업을 따내기 위해 군은 나혜수 진안군수 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수차례 중앙부처를 방문해 지역의 취약성과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발품 행정을 펼쳤다.

특히 하노마을(이장 박정숙)과 사양마을(추진위원장 박덕만) 주민들이 취약한 마을을 개선하기 위해 수차례 의견수렴과 회의를 거쳐 주민이 필요한 사업계획을 수립 결정하는 등 주민과

행정이 힘을 합쳐 하나 이뤄낸 성과다.

나혜수 진안군수 권한대행은 "앞으로 선진된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여 낙후된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발전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안군은 2015년 동향면 상·하양지마을 37억원, 2016년 성수면 원구신마을 16억원을 확보한 바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은퇴 도시민 영농·생활지원 정책 추진

무주군은 고령의 은퇴 도시민들의 영농 및 생활지원을 위해 1500만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은퇴 후 귀농·귀촌을 결심한 도시 은퇴자들의 관내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만 65세 이상인 이주 3년 이내 무주군 전입 귀농·귀촌인이 대상이다.

무주군은 올해 10가구를 선정할 계획으로, 영농활동과 텃밭 가꾸기에 필요한 영농기자재, 주거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소모성 집기류(장판, 도배지 등)에 대한 구입비를 지원한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귀

농·귀촌팀 강해경 팀장은 "무주를 귀농·귀촌 1번지로 만들기 위해 올해도 다양한 체험·학습, 거주기간 지원 사업들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며 "그 중에서도 고령 은퇴 도시민들을 위한 영농 및 생활지원 정책은 관내 인구유입과 정착, 그로 인한 지역 활성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무주군은 지난해 820명이 귀농·귀촌하는 등 도시민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올해 도시민 대상 상담·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농촌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또 예비 귀농·귀촌인 단기 거주 및 농촌생활 실용 교육 추진에 심혈을 기울이는 한편, 체재형 가족실습 농장 등 임시거주와 영농실습이 가능한 시설 운영에도 집중해 귀농·귀촌인 수를 5% 이상 늘려 나갈 계획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저소득층·취약계층에 마스크 우선 보급

진안군은 지난 6일 코로나19와 미세 먼지로부터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마스크를 우선 보급한다고 밝혔다.

진안군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은 마스크 대란으로 물량확보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경기도 안성시에 있는 마스크 제조업체를 이틀 동안 직접 찾아 마스크 5,000매를 긴급 확보했다.

군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 정도가 심한장애인, 운전업무 종사자들에게 확보한 마스크를 1인당 2매씩 신속하게 보급했다.

현재 정부가 우체국과 농협에서 마스크를 공공판매하고 있으나 저소득층 대부분이 고령 또는 장애로 인해

마스크 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군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마스크 물량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군은 마스크가 추가 확보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확대 배부하여 저소득층 마스크 구입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군민의 건강을 지켜나간다는 방침이다.

나혜수 진안군수 권한대행은 "정부에서도 1인당 마스크 구입량을 2매로 제한하는 어려운 상황이다"며 "앞으로 더 마스크를 최대한 신속하게 확보하여 군민의 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